



폭설대비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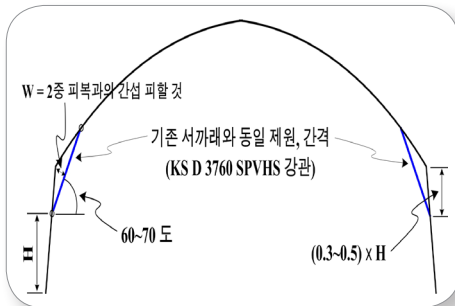
- ❶ 비닐하우스의 폭설 사전대책과 눈 내릴 때 대책 및 사후 대책을 알려드리오니 미리 점검하여 올겨울에는 폭설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.
- ❷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복구할 때는 ‘내재해형 규격 설계도’에 따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.
 - 설계도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 - 검색방법 : <http://www.rda.go.kr/> → 농업기술 포털  
→ 기술정보 → 농업기술정보 → 시설표준설계도



농림축산식품부

RDA 농촌진흥청

사전 대책



<처마 보강>

- 비닐하우스 동 사이는 1.5m 이상 확보하고, 제설 장비를 미리 준비함.
- 하우스 적설 방지와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함.



<보조 버팀기둥 설치>

- 노후 되었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처마부 보강과 보조 버팀 기둥 설치 등으로 붕괴를 예방함.



<겨울철 휴작일 때 비닐 걷어내기>

- 겨울철 휴작일 때는 비닐을 미리 걷어 피해를 예방함.



<배수로를 깊게 파고 비닐피복>

- 눈이 녹은 물이 비닐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, 비닐을 씌워 습해를 예방함.

눈이 많이 내릴 때 대책



<지붕 위에 쌓인 눈 쓸어내리기>



<수막시스템 가동하여 눈 녹이기>



<내부보온시설을 열고 난방기 가동>



<붕괴가 우려되면 비닐 찢기>

-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 내려 줌.
 - 비닐하우스 한 지점에 여러 명이 올라가 골조가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등에 주의 함.
- 수막장치나 난방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우스 내부에서 지붕의 눈을 녹여 내리도록 함.
 -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내부보온 시설(2중, 3중)을 연 상태에서 가동함.
 - 가능한 경우 이동식 전기온풍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둬.
-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쌓여 무너질 것이 예상되면 과감하게 비닐을 찢어 골조 붕괴를 예방해야 함.
 - 비닐 찢기 작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함.

사후 대책



<비닐 + 보온커튼 덮기>

- 비닐만 파손된 하우스는 작물의 저온장해를 최소화 함.
 - 비닐,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하여 보온함.
 - 오후에는 해 지기 전에 피복재를 덮어 보온력을 높여야 함.



<지붕 위 쌓인 눈 녹여 채광 관리>

- 가온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열고, 난방기 등을 가동해 내부온도를 높여 지붕 위에 쌓인 눈을 녹아내리게 함.
 -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관리함.



<무너진 골조 일으켜 세우기>

- 골조가 흰 것은 일으켜 세우고 골조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조 버팀기둥을 신속히 설치함.



<무너진 비닐하우스 응급복구>

- 피해 상황을 행정기관(시·군청, 읍·면·동사무소)에 즉시 신고하여,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, 파손된 비닐이나 무너진 하우스를 응급 복구함.